

## 북한건축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How are We to Approach the Architecture of North Korea?

김병성 / (주)삼우설계 북한건축연구회 간사  
by Kim Byung-Sung

#### 우리에게 북한의 의미

북한은 우리에게 항상 상반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나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핏줄이 살고있는 곳 -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당신의 형제자매가 지금도 살고있는 나라 - 의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6.25전쟁을 일으켰고 아직도 가끔씩 무력도발 및 테러활동을 일으키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경계해야 할 나라, 그리고 가장 폐쇄적이고 교조적인 문사는 나라의 이미지로 다가온다. 불행히도 전자의 이미지보다도 후자의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다.

#### 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동구 공산권은 몰락하여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북한도 김일성이 죽고, 내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국제사회에 문호를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있고 곧 시장경제체제를 일부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한다.

현재 북한은 나진, 선봉지구를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부 남한의 기업이 진출하여 합작사업 등의 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기업은 북한지역에 대규모 공단개발을 계획중이고, 또한 금강산도 개방하여 남한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나 북한지역을 관광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 위기에 의한 체제붕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우리정부도 북한에 대해 개방유도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의 당위성 및 문제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민족 모두가 통일을 열망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한다. 우리 또한 통일을 무척이나 갈망하고, 가까운 시일 내 통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민족적 열정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는 매우 미흡한 것 같다.

일부정치집단과 소수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통일방식을 제시하고, 관련 연구논문도 간헐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일부 관심분야, 즉 정치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도 통일의 당위성을 개진하거나 추상적인 통일론에 머물고 있다.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구체적 각론적인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 자료 및 정보의 부족

적대적이건 가장 가까운 나라이건 간에 북한은 미래에 우리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게 될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정보는 차치하고라도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더 심하다. 관련 연구논문도 거의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타 분야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 같다. 손에 꼽을 정도의 몇몇 학자가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논문과 망명인사의 몇 편의 글에서나마 얼핏 북한건축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북한이 매우 폐쇄적인 나라이고 통제가 심하여 접근하기조차 힘든 나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유학한 중국교포조차 대학에서 배우던 교과목을 본국에 돌아갈 때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이라는 사회는 우리 사회와 달리 다양성이 부족하여 발행되는 서적의 종류도 매우 적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 등의 간행물이 1년에 약 400여종 정도의 소량이다. 최근에는 경제사정이 더욱 나빠져서 더욱 더 줄었고, 북한에서 계간으로 발행되는 유일한 건축관련 잡지인 「조선건

축」도 중단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북한건축관련 정보나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부족이 아닐까? 북한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이고, 앞으로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보듬고 살 같은 핏줄이라기 보다는 여태까지 적으로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위협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미래에도 가장 충돌 가능성이 많은 적으로 간주되고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국내에서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는 모두 특수자료로 분류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지침(대통령령)에 의거 관리되고 보관된다. 통일원 북한자료실에서 일반국민 모두가 열람은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은 열람도 제한적이고 복사도 일정정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당국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북한에서 발행된 서적이나 자료를 보관하거나 복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이 국내건축관련 업체는 단 2곳(국토개발연구원과 민간 건축설계업체인 삼우설계)뿐이다. 이런 사실은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과 동시에 우리 건축계의 관심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 북한건축 연구의 필요성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어 갑자기 흡수통일이라도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이렇게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과 남북한 주민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일 것이다.

통일이란 단순히 생각하면 우리사회와 북한사회가 합쳐서 살을 맞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사회 각분야는 북한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며 살아갈 것이다. 즉, 건축계는 북한 건축계와 통합하고 건축관련인사와 같이 일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건축계를 정확히 아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등이 통일 후 예상되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갈등과 혼란은 결국 우리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 어떤 차이, 어떤 특징이 있나?

북한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우리 남한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지배체제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55년이라는 세월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건축환경과 문화를 우리 남한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발전시켜 왔다. 사용하는 건축용어도 다르고 건축작업과정 및 목표, 작업환경도 다르다.

### 시기별 건축의 특징

북한 건축물의 형태는 시기별로 특징을 지



능라도 경기장: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북한에서 제일 큰 경기장으로, 북한의 주요행사가 여기서 열린다.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끌고, 대동강중간에 능라도라는 섬에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블록의 맹주인 소련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이라는 이념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 북한의 건축을 주도한 건축가의 대부분이 소련에서 공부를 하고 소련의 건축문화를 수입했다. 한국전쟁 말기 모스크바 건축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돌아온 김정희가 평양시 총계획도를 작성했으며, 우랄공대 건축학부를 졸업한 이 형, 신순경과 일제 때 건축을 전공한 노 식, 강처한 등이 주축이 되어 다층영구건물의 건축 및 건설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의 건축양식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층고가 높고, 강한 중심성을 띠고, 높고 좁은 창문, 1층에는 석조양식으로 장식하고, 벽체가 육중하면서도 문과 창개구부 주위 장식은 물론 처마장식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건물은 6.25동란 중 전국의 70~80%가 파괴되었고, 평양은 약 90%가 완전히 파괴되어 현재 평양의 건물은 모란봉의 최승대, 을밀대, 현무문 등을 제외하면 거의가 한국전쟁 이후 새로 지어진 것이다. 조선시대의 주요 건물들은 일본인이 헐어버리고 일제 때의 도청과 화신백화점은 현 체제가 헐어버렸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나머지 건물의 대부분이 폭격과 화재로 없어졌다고 한다.

휴전 직후에도 북한은 러시아에서 유학한 건축가들을 앞세워 평양을 비롯한 파괴된 도시의 복구와 건설에 주력했다. 비록 많은 것이 파괴되었지만 사회주의 블록의 원조에 힘입어 시멘트, 강재, 요업공장 등이 짧은 기간 내에 복구·확장되었으며, 평양을 비롯한 도시건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구라파 사회주의권 블록의 나라들이 도시건설을 직접 지원하여, 헝가리가 평양, 동독이 함흥, 체코가 청진에서 도시 한구획을 맡아서 계획에서부터 시공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이들이 건설한 3~4층의 저층 건물들은 평양시에서는 70년대 중엽의 재개발로 완전히 사라지고 함흥과 청진에는 아직 일부가 남아있다.

전후복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1950년대에는 주택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건설의 가장 큰 과제였다. 주택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집단화하고, 밀집화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당시 북한 사회분위기와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축 및 건설에서 필수적인 것이었다.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 등은 50,60년대에 북한사회가 직면한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도시에서는 고층아파트가, 농촌에서는 2~3세대로 구성된 2층의 연립주택이 조립식 공법으로 건축되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건물의 특징은 개성이 없고 무미건조하다고 한다.

주택부족 해결을 위해 북한은 최근 평양을 비롯한 원산, 청진, 남포 등의 도시에 5~10층의 아파트를 기본으로 하면서 4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농촌에는 2~3층의 연립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또한 기존의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60년대 중순부터는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지어졌다. "민족적 건축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건물을 지어야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북한 건축계



주체사상탑 : 김일성광장의 대동강 건너편에 있고, 평양 도시계획의 중요한 축이라고 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상징탑이다.

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 남한과는 달리, 전통건축의 지붕을 직설적으로 대입하여, 팔작지붕을 높이가 다르게 중첩시키고, 하부의 기단을 중요시하고, 층수가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덩어리와 지붕으로 구성된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느끼도록 기단에서 강하게 수평성을 부여하여 처리하였다. 평양의 옥류관,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등의 건물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 이 양식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북한건축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는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비롯된 사회주의적인 우월성을 표현할 의도로, 거대하고 높은 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된다. 이 건물들은 기능성, 효율성, 경제성보다는 체제의 우월성을 국내외에 선전하고 자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들이다. 고려호텔, 유경호텔, 5.1(능라도)경기장, 주체사상탑 등이 사회주의 우월성을 표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념비적 건축물들이다.

또한 평양을 사회주의국가 도시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평양에서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공원 속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도시 계획사업을 진행시켰다. 특히 평양 중심부인 본평양에서는 모든 건물의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계획하여 골뚝을 없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공해가 없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농촌에는 2~3층의 문화 주택을 실리카트 벽돌(일종의 발포벽돌로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무게가 가볍다고 함)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건설하였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김정일의 교시 "건축도 하나의 예술이다. 그러므로 건축창작도 반드시 비반복적이어야 한다."에 따라 새로 짓는 건물들이 조형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동평양극장, 청년중앙회관, 병상관, 평양교예극장 등과 창광거리, 광복거리의 다양한 형태의 살림집(아파트)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 건축현황과 차이

북한에서의 건물은 개인소유가 없으며 개인 건축도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건물은 국가소유이며, 개인은 이용권리만 가진다. 모든 건물은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여 지어진다. 국민 개개인은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신분등급

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배정 받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업적 목적과 다양한 계층의 의도에 의하여 건축되어지는 자본주의와 달리 다양성이 부족하다.

북한 도시건축의 특이한 점은 상업·업무 기능의 건물이 가로변에 배치되는 자본주의 도시와는 달리, 고층아파트와 공공건물이 가로변에 배치되어 전체 도시경관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대중의 교육, 훈련을 위한 극장, 도서관 등의 집회시설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하므로 탁아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아동을 위한 보조 교육기관도 많이 건설되었다.

건물은 주로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PC공법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인 유경호텔도 철근콘크리트구조이다. 시멘트는 질이 좋아서 수출도 하지만 기타 건자재와 마감재는 조약하기 그지없고, 건설현장의 기계화 수준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한다.(몇 년 전 남한에 수입되어 들어온 시멘트 강도는 시험결과 우리제품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함.) 그래서 주요 건물의 유리 및 기타 마감재는 주로 동구권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건축설계는 국가기관인 각 단위 도당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도시설계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다. 북한은 대표적인 주요건축물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백두산 건축설계연구원 같은 건축설계사업소를 정무원 산하에 두고 운영한다고 한다. 이 연구원은 도시설계를 담당하던 소규모집단이었으나 1989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 중심부에 연면적 10,000㎡인 건물을 마련하고 현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인민설계가와 공훈설계가 들을 비롯한 수 십명의 박사, 준박사급의 전문설계가들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젊은 설계가들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조직은 설계가들의 편의를 위해 실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설계실, 구조물설계실, 전기 시설물설계실, 설계역량실, 환경위생설계실, 건재설계실 등이 있다. 유경호텔, 국제친선전람관, 능라도 경기장, 창광거리 등이 이 연구원 작품이다.

또한<조선건축>이라는 건축 전문잡지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시공과 자재정보가 수록되어 있는<건설과 건재>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북한에는 「평양건설건축대학」이 건축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학이라고 한다. 이 대학은 약 3,0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리고 각 도마다 이런 건설전문대학이 있고, 현재 북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가가 평양건설건축재대학 출신이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현상설계가 있는데, 대 상설계라고 한다. 중요한 국가사업인 경우에 조선건축가 동맹에 속해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가가 참여해야 하고 선정 된 사람은 몇 급의 특진도 한다고 한다.

건축용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과는 많 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건물의 용도」를 「건물의 사명」으로, 「계단」을 「층대」로, 「에스컬레이터」를 「자동층대」, 「단면도」를 「자 림도」로, 「주택」을 「살림집」으로, 「발코니」를 「내민대」로, 「계단실형 아파트」를 「색지아식 살림집」으로, 「거실」을 「공 동살림방」으로 표현한다. 「건축기법상 변화를 주는 것」을 「도섭을 부린다」로 표현한다. 이런 용어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우리가 준비할 것은 너무도 많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 모두이다. 즉, 사회 각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국민 개개인이다. 정치체제나 제도가 통일이 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진정한 통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통일은 갈등없는 사회적 통합을 의 미한다. 남북한의 각자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체끼리 서로의 차이를 알고, 존재를 상호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싸 주는 노력만이 통일후의 갈등을 최소화 할 것이다. 우리 건축계는 북한의 건축계와 통합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같이 활동해야 할 것이다. 북한건축에 대한 우리 건축계의 관심 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 비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위에 간단히 언급한 건축현황과 차이 외에 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연구할 주제는 많이 있다. 통일 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존 건물의 재활 용 혹은 리노베이션 문제, 건축분야 학자 및 기술자 현황, 어떤 건축대학이 있고, 건축교육은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 가, 기술자의 수준 내지는 자격의 상호인정기준 등 아주 중 요하면서도 미묘한 문제가 널려있다.

또한 연구활동과 더불어 통일전이라도 상 호접촉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우리 건축가협회와 북한의 조선건축가동맹이 또는 우리학자와 북한의 학자가 남한의 설계사무소가 북한 의 설계사업소와 서로 만나서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 방 문하여 세미나도 하고 관심있는 건물을 함께 견학하기도 하 고, 더 나아가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여 공 동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추출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갖다 줄 것이 다. 싫건 좋건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우리민족의 시대적 사명 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 건축계는 미리 준비를 해 나가 야 한다. 북한 건축에 대한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체계적이고 각론적인 연구를 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워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줄 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경호텔: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 (105층)로, 경제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백두산건축설계원 작품으로, 북한의 경제적 수준 에 비춰볼 때 철근 콘크리트조로 이런 초고층건물을 설계하고 시공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 하다.